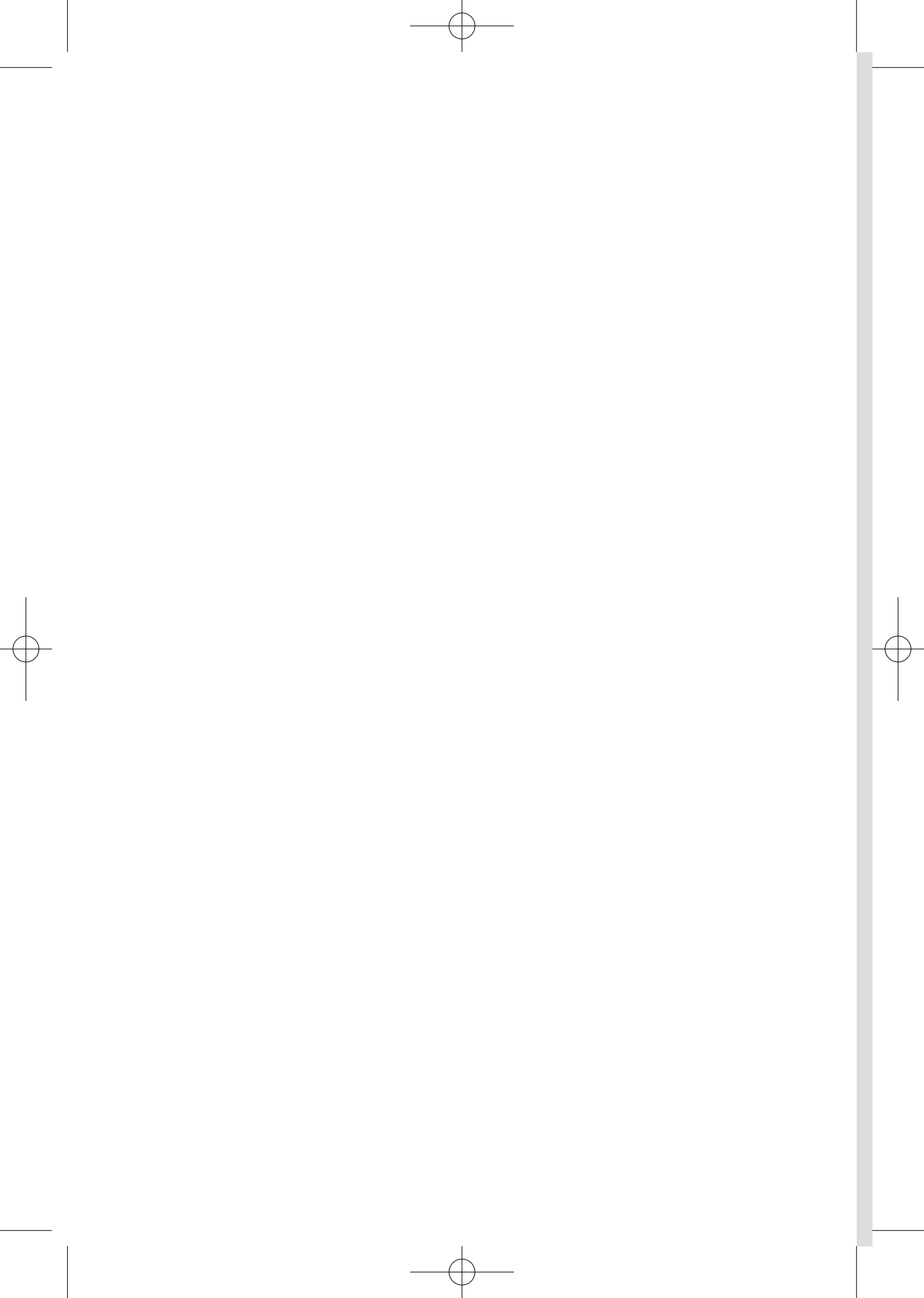


영원히 살려면

How to Live Forever



영원히 살려면

How to Live Forever



John Phillips 지음

김 용 목 옮김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영원히 살려면

How to Live Forever

©2015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지 은 이 | John Phillips

옮 긴 이 | 김용묵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5. 4. 25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사진 | 안성식

디자인편집 | 김화영

■ ISBN 978-89-89741-777-0

■ 정가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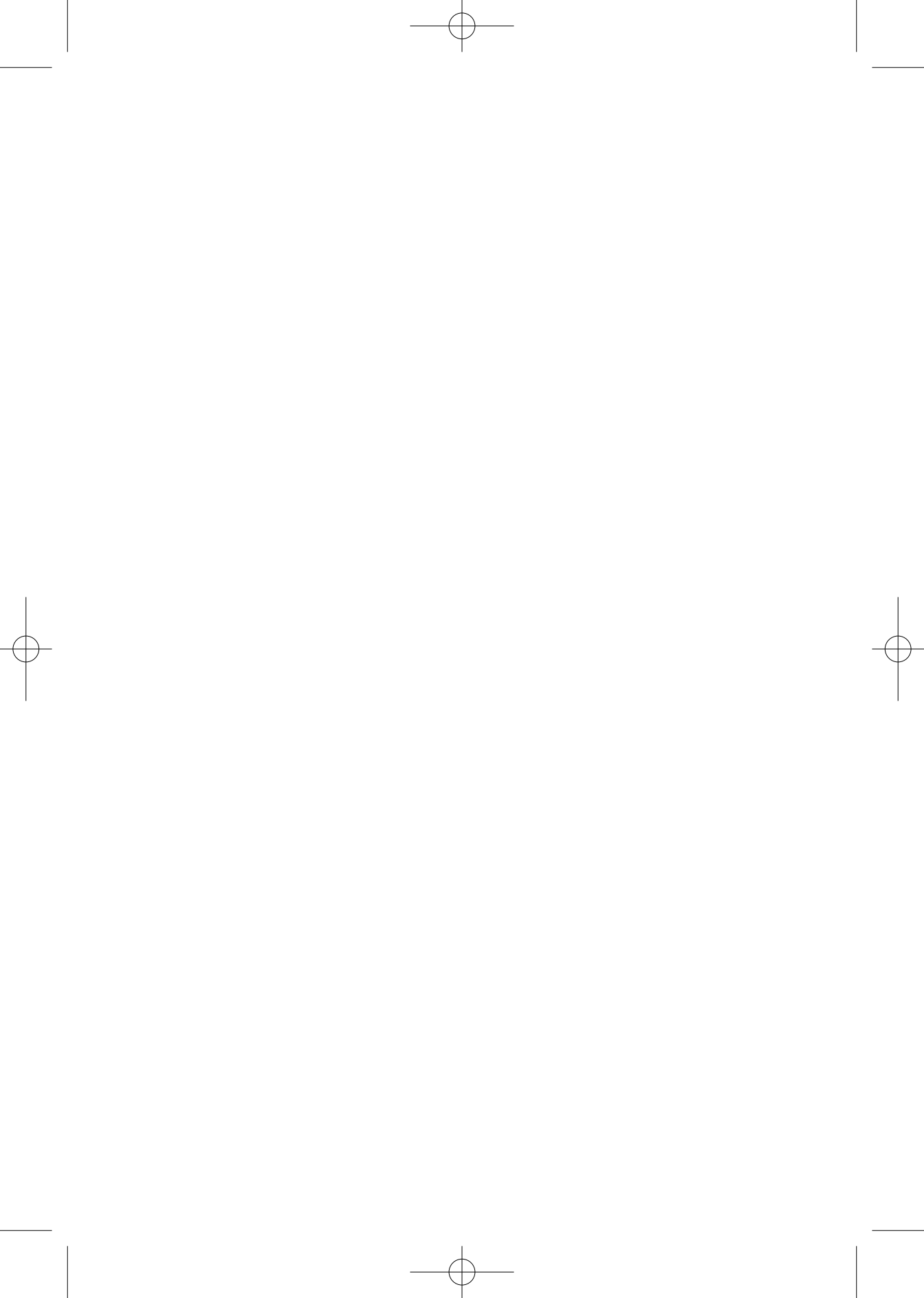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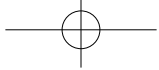


CONTENTS

| | |
|---------------------|----|
| I. 기본적인 사실 | 10 |
| II. 살아 있는 말씀 | 17 |
| III. 거룩하신 분 | 26 |
| IV. 게임의 규정 | 33 |
| V. 모든 것을 보는 눈 | 42 |
| VI. 완벽한 사람 | 47 |
| VII. 갈라진 바위 | 52 |
| VIII. 위대한 분리 | 58 |
| 답안 성경구절 |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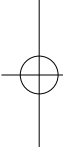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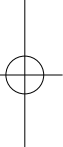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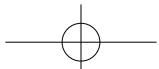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영원히 살려면

이 자습서는 여러분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스스로 찾아내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학습 요령

1.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2. 각 질문들을 꼼꼼히 읽으세요.
3. 각 질문마다 제시된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이 때, 실수로 책 이름이 비슷한 다른 구절을 찾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4. 해당 성경 구절을 토대로 질문에 답을 다세요. 답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하도록 합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은 대답과 함께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 왜냐하면...”
5. 가능하다면 어려운 단어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사전도 갖추니다.
6.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성경을 통해 공부한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18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연습문제

각 과의 끝에는 학습한 내용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습문제가 있습니다.

1. 연습문제의 질문을 토대로 교재를 주의 깊게 복습하세요.
2. 연습문제에 답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예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잘못 찾아서 질문에 답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교재 앞부분의 질문에 바르게 답변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3. 한 과의 공부를 완전히 마친 후, 연습문제는 앞의 답변을 보지 않고 푸세요.
4. 문제를 꼼꼼히 푼 후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해답으로 채점합니다.
5. 해답지에는 연습문제의 각 문제마다 이 문제의 답과 관련된 문항 번호가 연결돼 있습니다. 답이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정답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수로부터 다시 배우세요.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기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22-25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이 교재를 통해 배운 것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야만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랄 수 있습니다.

I. 기본적인 사실

그 자체만으로 명백한 진리

1.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증명하려는 논조입니까, 아니면 이를 단순히 기정사실로 선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1

2. 성경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자연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9, 20

창조의 시기

3.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를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1

하나님의 전능하심

4. 하늘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9:1

5.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천문학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천체들의 크기, 수, 궤도, 운동 속도가 이를 증거합니다. 지구는 질량이 6×10^{21} 톤이나 되지만 우주에 비하면 여전히 작습니다. 그 반면 태양은 이 지구가 15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열을 내뿜는 과정에서 1초에 420만 톤에 달하는 질량을 잃고 있지만,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1500억 년이 지나도 소모되는 질량은 전체 질량의 1퍼센트에 불과할 거라고 합니다.

태양도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별들 중 하나이며, 사실 우주 전체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무려 10^{28} 개 가량이 더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양조차도 작습니다. 관측에 따르면 안타레스라는 별은 태양이 6400만 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육중한 천체들을 창조하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다윗은 이 하늘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느낌을 무어라 표현했습니까?

시편 8:3, 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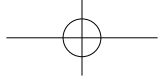
7.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사야서 40:12-14

.....

.....

.....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8.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사실을 천문학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복잡한 원리가 이를 증거합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에 달하는 은하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정해진 진로대로 불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이탈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움직임은 수학적으로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혜성의 출현이나 일·월식 날짜를 계산할 통해 수 년 전부터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명한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진 경은 우주가 “순수 수학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찬사를 남긴 바 있습니다.

9.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며, 천문학의 법칙은 이것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10.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시편 139: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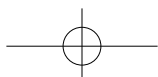
.....

.....

영원하신 하나님

11.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사실을 천문학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아갑니다. 한없이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발사되어 지구에 오늘날 도착한 빛은, 그 광속으로 50억 광년이나 되는 거리를 운행한 것입니다. 그럼 우주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첫 순간에도 계셨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12. 다윗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시편 139:7-18

과학의 한계

13. 우주의 기원과 본성, 그리고 존재 목적을 과학이 과연 시원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8-9

14.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11:33-36

15. 과학은 사람에게 궁극적인 본질에 대한 지식을 정말로 늘려 주었습니까?

과학은 분명 사람에게 우주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와 동시에 사람에게 수수께끼도 더욱 안겼습니다. 과학에 의해 지식이 증가하면 할수록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역도 더욱 커진 것입니다. 분야를 불문하고 과학이 한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선사하면, 100가지의 의문만이 더 생겨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법칙과 질서가 있으며, 이를 세우신 “지성”이 놓여 있습니다. 다름아닌 하나님의 지성(mind)입니다.

16. 과학이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까?

예. 예를 들어 우주의 기원은 과학이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있습니다. “기원”에 대해 논하는 과학자는 과학자라기보다 철학자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할 뿐이지 자기가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론을 다루지 사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17. 이와 같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진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8. 그럼, 우주의 기원에 대해 성경이 진술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히브리서 11:3

19. 기원에 대해서 당신은 사람이 나름대로 추측해 낸 견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20.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1:6

.....

21.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4:2, 3

.....

.....

.....

22. 무신론자가 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가져올 궁극적인 말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11-15

.....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재의 문항과 자신이 적은 답안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문항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다음은 이 과에서 공부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표를, 틀리면 ×표를 오른쪽 여백에 기입하세요.

1.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함을 논리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2.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함을 계시하고 있다.
3. 성경은 하나님을 “순수 수학자”라고 묘사한다.
4. 다윗은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5.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해 계신다.
6. 과학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7.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무슨 주장을 하든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8.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길 원하신다.
9.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심리적이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이다.
10. 하나님이 없다고만 말하면 죄 문제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II. 살아 있는 말씀

1. 우리 자신의 지적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직접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욥기 23:3, 8, 9

2. 왜 지적 활동만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란 인격을 가진 존재가 먼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격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주변 사실”일 뿐입니다. 인격 그 자체는 인격체가 먼저 행동이나 말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야만 외부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 및 의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려 주지만,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을 드러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주의 깊게 상고하노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0

4. 성경이 필수불가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해 사람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작정이신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시해 놓은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5.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통로를 사용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 2

.....

.....

.....

성경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증거

6. 성경이 바로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내적 증거가 있고, 성경 밖의 원천으로부터 찾아 보일 수 있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7.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선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 성경에는 이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담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 a. 출애굽기 20:1
- b. 예레미아서 2:2
- c. 에스겔서 2:1
- d. 이사야서 1:10
- e. 열왕기상 3:5

9.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옛 대언자(선지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그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기록했습니까?

- 베드로전서 1:10, 11

10.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스스로 선언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디모데후서 3:16

11.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란 표현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려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길 원하신 단어들을 그대로 적어서 문서로 남겼습니다.

12.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인간인 기록자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성경 자체에서 더 찾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21

.....

.....

13.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 기록되었습니까?

제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이 기록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책의 기록이 끝나기까지 약 1500년이 걸렸으며, 기록된 장소도 동방으로 는 바빌론에서부터, 서방으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입니다.

14.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찬된 책이라면 오류와 모순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성경이 그저 사람이 기록한 책일 뿐이라면 그런 추측은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깊이 잘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이루는 66권의 책들은 서로 구조적으로 놀라운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 성경에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입증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에서 오류나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것들은 상당수가 오래 전부터 논의되던 것이고, 해명이나 반박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개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읽거나 성경적인 배경지식이 없이 읽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의 부재, 또는 최근의 과학적 발견에 대한 무지도 한몫 합니다.

16.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결정적인 내부 증거는 있습니까?

예. 비록 성경이 과학 교과서와 같은 책은 아니지만, 성경의 저자는 현대 과학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성경이 자연 현상에 대해 언급한 곳이 있으면 그 진술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성경의 영감을 입증할 만큼 정확합니다.

물론 성경은 당대에 받아들여지던 “과학적” 사실과 정반대인 진술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옛날 사람들이 가진 과학관에 따라 기록되었다면, 오늘날에야말로 성경의 신뢰도는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고대에 만들어진 어떤 책 중에도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17. 영감을 입증하는 가장 큰 내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수백 가지가 이미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눈앞에서 차근차근 성취되고 있습니다.

18. 오늘날 성취된 예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부상(浮上)과 이 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입니다. (에스겔서 38, 39)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의 부활입니다. (예레미아서 16:14-16, 스가랴서 8:7, 8 등)

19.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의 영감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경 자체가 선언하고는 있습니까?

신명기 18:21, 22

성경의 기원이 신성하다는 외적 증거

20.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이라는 성경 외적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학의 여러 분야의 연구를 통해 성경이 진실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a. 고고학 : 인류는 과거를 연구하면서 성경 시대에 대해 많은 조명을 얻어 왔습니다. 한때 불신자들은 성경에 언급된 당대의 백성, 관습, 사건, 왕과 황제들이 모두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고고학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은 진실인 것입니다.

b. 천문학 : 히브리서 11:12를 보면, 하늘의 별이 해변의 모래알들만큼이나 셀 수 없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간이 믿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한때 별의 개수를 세려는 시도를 했었으나,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 의학 :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도 전에 성경은 식이요법과 전염병 검역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시절에 전인류가 제대로 지키기만 했다면 무수한 질병으로부터 수백만의 목숨을 건졌을 규정이었습니 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 위생을 가르치고, 매 주마다 하루를 쉬며 해마다 휴일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들은 오늘날의 의학보다 무려 몇 세기를 앞선 것이었습니다.

d. 언어학 : 성경의 예언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치밀하게 성취된 것에 대해 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니,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를 거짓말쟁이에 날조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인간 언어의 어휘가 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불식시킨 것은 언어학자입니다. 해당 예언이 들어 있는 성경의 어휘가,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시대의 어휘와 정확히 일치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21.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자필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본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잘 전수되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원본 문서의 내용이 다른 원천으로부터 확정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도 반드시 그 원본만을 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최초로 기록된 자필 원본은 비록 오래 전에 소실됐지만, 그 원본의 본문은 수세기 동안 무수히 필사되어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고대 사본은 수백 종류가 존재하며 이들을 하나씩 꼼꼼히 대조해 보면 원본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

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본문이 최초의 성경 원문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법에 의해서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22.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a. 요한복음 20:30, 31

b. 누가복음 24:27

c. 요한일서 5:13

23. 성경의 인물인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좋은점을 가져다 주는지 사도 바울은 무어라 말했습니
까?

디모데후서 3:15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재의 문항과 자신이 적은 답안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문항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으십시오.

다음은 이 과에서 공부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표를, 틀리면 ×표를 오른쪽 여백에 기입하세요.

1.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기에 때문에, 그 인격이 알려지려면 그분이 직접 자신을 계시해야만 한다.
2.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를 거부했다.
3. 하나님은 대언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4.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스스로 주장한다.
5.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다.
6. 성경에는 내용상으로 여러 잘못과 모순들이 존재한다.
7.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취된 여러 예언들은 성경의 원천이 신성함을 증거한다.
8. 현대 과학의 업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고 있다.
9.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이다.
10. 성경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안내서이다.

III. 거룩하신 분

이사야가 본 환상 (vision)

1. 이사야는 주님께서 드높은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곁에는 어떤 존재가 더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6:1, 2

2. 이 존재들은 자기 얼굴에 무슨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6:2

3.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3

4. 이 존재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좌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도 흠도 없는 이 스랍조차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는 것이 성경의 엄중한 판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면해서 서게 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5. 이 모든 것을 본 후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사야서 6:5

6. 대언자 이사야가 한 말에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란 표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원래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으며, 누군가에게 접근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입술을 가리고서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민수기 5:2, 레위기 13:45, 46)

7.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죄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병이 살갗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죄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으로 나타납니다. 죄는 나병과 마찬가지로 부패성과 전염성이 있으며 역겹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추시키며 끝내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8. 다니엘은 주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 가운데 있었을 때, 환상 속의 인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다니엘서 10:11

9. 대언자 에스겔은 다니엘을 성경의 어떤 성도들과 동급으로 평가했습니까? 이들은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에스겔 자신도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요 일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4:14, 20

10. 전세계를 통치하는 황제로서 당대에 거칠 게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
조차 다니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니엘서 2:46

11.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로부터 잘못이나 약점을 찾을 수 있었습
니까?

다니엘서 6:4

12. 그들은 결국 다니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다니엘서 6:5

13. 천사와 같은 사람이 다니엘을 찾아왔을 때, 그와 함께하던 동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0:7

14. 그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10:8

15. 다니엘의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조차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대면하는 순간, 자기가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자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

16.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로 자주 묘사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23

17.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특별한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23

18.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한과 예수님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7:56; 20:20-24; 마가복음 10:35-40; 요한복음 19:25)

19.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요한은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9

20. 요한은 모든 영광 중에 사람의 아들이로서 오신 주님을 보고서 그분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a. 주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13

b. 주님의 가슴에는 무엇이 둘러져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13

c. 주님의 머리털은 어떤 색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14

d. 주님의 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14

e. 주님의 발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15

f. 주님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1:15

g.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16

h. 주님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1:16

i. 주님의 얼굴과 관련해서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16

21. 한때 예수님의 품에 거리낌없이 기대기도 했던 요한도 지금 그분을 보고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17

성경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22. 이런 기록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천사 같은 존재도 그분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도 그분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합니다.

23.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구원 받지 못한 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6:15-17

24. 이 과에서 배운 내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재의 문항과 자신이 적은 답안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문항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으십시오.

다음은 이 과에서 공부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표를, 틀리면 ×표를 오른쪽 여백에 기입하세요.

1.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계시되었다.
2.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순간 자신은 나병 환자만큼이나 부정하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3. 에스겔은 다니엘을 영적으로 노아와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평가했다.
4.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괴짜 종교인으로 취급했다.
5. 하늘의 영적 존재가 자신을 찾아오자 다니엘은 자신의 선행을 마음껏 과시했다.
6.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성경에 묘사되었다.
7. 부활하고 영광을 입으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보자 사도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시체처럼 되었다.
8.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이 보기에 두려운 것이다.
9. 죄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과 도전을 할 것이다.
10.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주의를 크게 기울여야 한다.

IV. 게임의 규정

1. 성경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예. 성경전서를 통틀어 많은 예가 있지만, 기본적인 규정은 모세의 율법(출애굽기 20장)과 예수님의 산상설교(마태복음 5-7장), 그리고 신약 서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성경의 자체 진술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법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서 3:9, 10, 23

3. 성경이 진단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본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까?

4. 이 법들을 모두 잘 지킨 사람이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3:17; 17:5; 베드로전서 2:22

모세의 율법

5.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출애굽기 20:2-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6.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어느 계명을 접하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했습니까?

로마서 7:7

7. 탐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욕망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혼의 내면에서 생기는 생각 하나하나를 파헤치는 이 계명에 의해, 유죄로 낙인 찍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8. 모든 계명을 잘 지키던 사람도 죄를 지어서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10

9. 이 원리를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섯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어겨서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판사에게 “판사님, 하지만 저는 계명을 딱 하나만 어기고 나머지 다른 계명들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곱째와 여덟째 계명은 분명 어기지 않았습시다.”라고 아무리 말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지킨 다른 계명들을 두고 탄원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 따르면 어긴 계명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은 존재합니까?

창세기 2:17; 에스겔 18:4; 로마서 6:23

산상설교

11. 이 유명한 설교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1, 2

12. 아래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그와 같은 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로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5:3-12

13.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때때로 정반대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5:8, 9

14. 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으며, 사람들 사이에 보
편적으로 통하던 해석을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a. 마태복음 5:21-26

b. 마태복음 5:27-30

c. 마태복음 5:31, 32

d. 마태복음 5:33-37

e. 마태복음 5:38-42

f. 마태복음 5:43-48

15. 이 모든 사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은 율법을 더욱 고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음욕을 품은 시선만으로도 간음이며, 증오심을 품은 태도만으로도 살인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나 앙갚음을 하려고 마음먹는 것도 중죄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율법은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다루는 반면, 산상수훈은 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셈입니다.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법 아래에서는 정죄 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잃어버린 상태이고 하

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켜지지 못한 규정

16. 유대인 율법사는 계명들을 요약해 보라는 그리스도의 지시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0:27

17. 계명들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은 했는데,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계명에 명시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18.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젊고 부유한 치리자에게 계명들을 더 기본적인 것으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20

19. 그 말씀에 대한 치리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21

20.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거기에 무엇이 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까?

누가복음 18:22

21. 양심을 뜨끔하게 하는 그분의 말씀에 치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18:23

22.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밝혀내신 사람의 면모는 무엇입니까?

그 젊은이는 그동안 율법의 형식은 문자 그대로 지켰는지 모르나, 율법에 담긴 정신은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나눠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이런 면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23. 이렇듯 우리는 법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10

2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a. 디모데전서 1:8-10

b. 로마서 3:19-20

25. 율법에 언급된 저주는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신명기 27:14-25; 28:15-68

26. 우린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존재이고 율법의 저주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13

27. 다른 어떤 곳에 희망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12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재의 문항과 자신이 적은 답안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문항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다음은 이 과에서 공부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표를, 틀리면 ×표를 오른쪽 여백에 기입하세요.

1.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며 무난히 살고 있다.
2. 십계명의 일곱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다.
3. 악한 욕망을 갖지 말라는 계명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4. 하나님의 법 중 단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된다.
5.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
6. 주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법의 정신까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보이셨다.
7. 그리스도께서 요약해 놓은 대로라면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8. 율법의 저주는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 언제라도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9. 율법의 저주는 사소하고 경미한 것이다.
10. 율법의 저주로부터 피하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V. 모든 것을 보는 눈

인간 마음의 본성

1.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아서 17:9, 10

2.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란 존재합니까?

로마서 3:10

3. “의로움”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일컫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고 전해 집니다. (사사기 21:25) 자기 눈으로 보기에 잘못된 것을 행한 게 아니라 분명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배교, 도덕적 타락, 패배 및 흉악한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은 불완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잠언 14:12 참고)

4. 하나님은 사람의 의가 무엇과 같다고 묘사합니까?

이사야서 64:6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

5. 사람이 성령에 의해 자기 혼에 대한 조명을 먼저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11

6. 이 사실을 더욱 확증해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14

7. 이 사실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8:30-35

8. 위의 사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교양 있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과 성경에도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53장을 펼쳤는데, 그 단락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우치는 데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눈이 열린 사람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란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 말씀의 의도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자라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9.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단정짓고 있습니까?

로마서 3:12

10.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방식으로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로마서 3:13-18

11.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a. 로마서 3:23

b. 이사야서 53:6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12. 하갈이 뜻밖에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6:13

13. 바울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2:16

14. 그리스도께서는 위의 사실과 관련해서 친히 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2, 3

15. 우리 모두가 이미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23

16.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심판하시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13

17.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8, 9

18.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 당장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18, 19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람의 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재의 문항과 자신이 적은 답안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문항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다음은 이 과에서 공부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표를, 틀리면 ×표를 오른쪽 여백에 기입하세요.

1. 하나님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보신다.
2. 성경의 사사기는 인간이 스스로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4. 교양을 갖추었던 이디오피아인은 아무 도움 없이 성경을 이해했다.
5.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했음을 지적한다.
6. 하갈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7. 하나님은 심판의 날 때 우리의 가장 은밀한 일까지도 다 심판하실 것이다.
8. 심판의 날 때 우리가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행위이다.
9. 성경은 우리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라고 말한다.
10. 죄의 삶은 사망이다.

VI. 완벽한 사람

1. 인류 역사상 모세의 율법과 산상설교에 충실하게 산 사람이 존재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17

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공인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며 예수님에 대한 모독을 일삼고 있는 H. G. 웰즈 같은 사람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가 실제로 눈으로 본 증언으로 세밀하게 편찬되었으며, 신뢰성이 충분하다는 것 역시 공인된 사실입니다. 증언법의 대가로 관련 분야에 수십 년을 종사해 온 사이몬 그린리프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저자는 자기가 증거한 것에 대한 참된 증인이며, 어떤 법정에서 서더라도 하자 없이 사실임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3.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19) 그분은 약 2000년 전,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1:26-38; 2:1-19) 그분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의 양자로 자랐으며, (마태복음 2:19-33)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분은 그 주장을 초자연적인 기적과,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로운 언행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자신의 주장에 분개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로마인들에게 끌려 간 후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0:17, 18; 빌립보서 2:5-8) 그로부터 사흘 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고린도전서 15:1-8) 40일 후 몸을 지닌 채로 눈에 보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50, 51; 사도행전 1:9-11)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면 권능과 큰 영광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1; 요한복음 14:1-3; 마태복음 24:1-51)

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마태복음 1:21

b. 디모데전서 1:15

아버지의 증언

5.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어라 증언했습니까?

마태복음 3:17

6. 이 일 후, 하나님은 또 언제 동일한 증언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1-6

7. 그리스도께서는 전생애를 통틀어 결국 어떤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셨습니까?

로마서 1:3, 4

동지들의 증언

8. 베드로는 훗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평판을 내렸습니까?

베드로전서 2:22-24

9.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무어라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24-28

10. 빌립은 그분에 대해 무어라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45

11. 마르다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무어라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1:27

대적들의 증언

12. 그리스도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관원들은 윗사람에게 그분에 대해 무어라 보고했습니까?

요한복음 7:44-46

.....

13. 예수님의 대적들은 그분을 사형에 처할 죄목을 만들어 낼 증인들을 찾았지만 한 부류의 증인들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마태복음 26:59, 60

14. 주님을 배반한 유다는 자살하기 전에 무어라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7:3, 4

15. 로마 통치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4

16. 십자가에서 죽어 가던 도둑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어라 증언했습니까?

누가복음 23:39-42

17.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무어라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3:47; 마태복음 27:54

18. 그리스도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희생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5; 요한복음 1:29; 베드로전서 1:18, 19; 3:18 참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재의 문항과 자신이 적은 답안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문항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으십시오.

다음은 이 과에서 공부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표를, 틀리면 ×표를 오른쪽 여백에 기입하세요.

1.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한 삶을 산 유일한 사람은 주 예수님이다.
2.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 기록은 전적으로 신뢰성이 있다.
3.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4.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참임을 입증했다.
5. 베드로는 예수님이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믿었다.
6. 도마는 평생을 의구심을 품으며 살았다.
7.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간 관원들도 그분의 말씀이 유일함을 인정했다.
8. 빌라도는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충분함을 감안하고 그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9.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백부장은, 그분과 주위의 두 도적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10. 그리스도는 죄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물이 될 수 있었다.

VII. 갈라진 바위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

1.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a. 요한복음 12:24, 27

b. 마태복음 16:21

2.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1주 전부터의 그분의 행적과, 형벌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사복음서는 모두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책의 거의 절반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이 열렸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 죄의 삯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23

4.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22

5.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 있습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판결에 따르면 그분은 합법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면제 받은 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6.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로마서 5:6-8

7.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3

8. 이것을 좀더 개인적이고 내게 와 닿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20: “나를

하나님의 아들”

9. 이 진리가 성경 다른 곳에는 어떻게 설파되었습니까?

a. 이사야서 53:5, 6

b. 베드로전서 2:24

c. 베드로전서 3:18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

10.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불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9

11. 그 칭호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백성들은 제단으로 헌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헌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은 몇몇 “정결한” 동물로 제한되어 있었고, 대개 어린양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린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어린양과 자신을 동일하게 간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어린양은 죽여 피를 밖에 뿌리고, 몸뚱이는 제단의 불로 태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의식을 통해, 죄를 제거하려면 죄없는 존재가 희생되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죄인들에게 일깨웠던 것입니다.

12. 이와 관련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을 위한 어린양이었습니다. (창세기 3:21; 4:4; 히브리서 11:4) 다음에는 가족을 위한 어린양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3-13) 그 후엔 민족을 위한 어린양이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29:38, 39)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양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세상을 위한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13.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한들 한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의 죄

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바치신 생명은 평범하고 유한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그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아무라도 자동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뜻입니까?

요한일서 1:8-2:2

15. 그 말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자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수지에 도시 사람들 전체가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 개개인이 실제로 그 물을 떠서 마셔야만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시키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16.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2:1-3

.....

.....

.....

히브리서 9:27

.....

.....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재의 문항과 자신이 적은 답안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문항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다음은 이 과에서 공부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표를, 틀리면 ×표를 오른쪽 여백에 기입하세요.

1.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2. 그리스도는 합법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면제 받은 신분이었다.
3.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
4. 성경은 우리를 길 잃고 방황하는 양에다 비유한다.
5.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들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치르셨다.
6.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렀다.
7.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8.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은 상태이다.
9.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바치신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다.
10.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는 있다.

VIII. 위대한 분리

두 가지 길

1. 모든 종교들이 우리를 참 하나님으로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4:6

2. 사람들이 살면서 선택하는 많은 대중적인 길들에 대해 하나님은 무어라 말씀합니까?

잠언 14:12

3. 인생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13, 14

두 갈래 목적지

4.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맞이할 최후의 말로를, 자신을 믿은 사람과 대조하여 어떻게 묘사합니까?

요한복음 3:16

5. 멸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0:15

6. 반드시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사람들로 특별히 분류된 부류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1:8

7. 믿지 않는 자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나 정죄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실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8. “영존하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1-5

9. 하늘은 실재하는 장소입니까?

요한복음 14:1-3

두 가지 선택

10.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수아기 24:15

11.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22, 26

12. 이 선택에 있어 중립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23

13.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a. 사도행전 3:19

b. 요한복음 1:12, 13

c. 로마서 6:23

14.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우리가 직접 획득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영생은 더는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던 지위에서 내려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듯이 값없이 받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 않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받는 것뿐입니다.

15.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언 27:1

16. 아래의 두 기도문 중 어느 것에 서명하시겠습니까?

a. “주 하나님, 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당신께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뿐인 것도 압니다. 이제 저는 주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구주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명 날짜

b. 주 하나님, 저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명 날짜

17.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가, 거부하든가, 혹은 결정을 보류하든가 셋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뒤쪽으로 가서 선택한 것을 기록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람의 선택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재의 문항과 자신이 적은 답안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문항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다음은 이 과에서 공부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표를, 틀리면 ×표를 오른쪽 여백에 기입하세요.

1.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2. 모든 종교들이 참 하나님으로 사람을 인도한다.
3.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4. 성경에 따르면 불못이란 장소가 존재한다.
5.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살인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같이 분류한다.
6. 단순히 신실한 것과 우리가 믿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7. 하늘은 실존하는 장소이다.
8. 빌라도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었다.
9.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관해 중립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구원은 선물을 공짜로 받는 것처럼 내 것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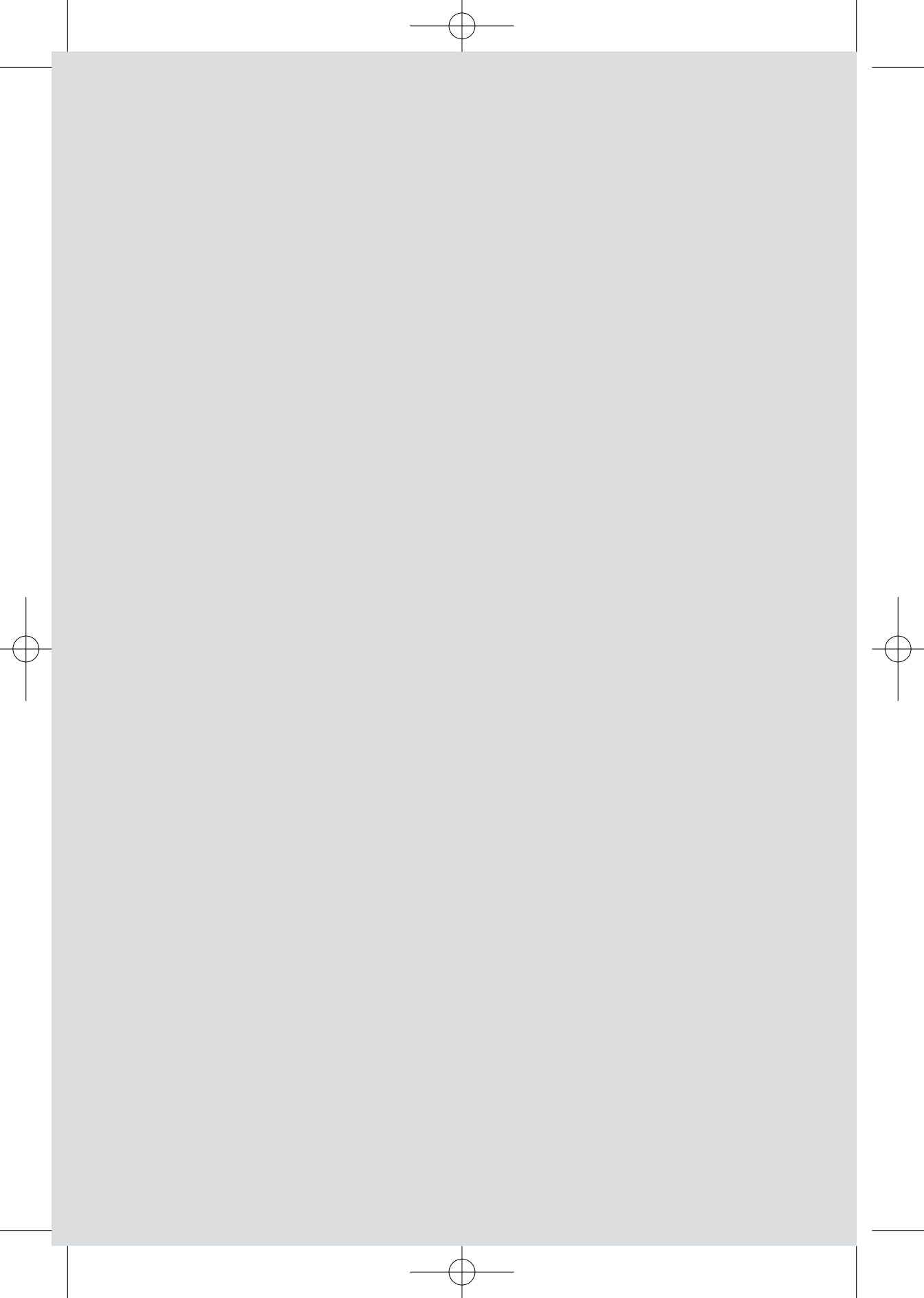
나의 개인적 답변

아래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만)

- * 나는 이 공부를 하기 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이미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 * 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 지금 이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 *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명

답안 성경구절



I. 기본적인 사실

1. (창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2. (롬1: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롬1: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3. (창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4. (시19:1)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6. (시8:3)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시8: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7. (사40:12) ¶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뿔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사40:13)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사40:14)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 주었느냐?
10. (시139: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139:8)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시139:9)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

할지라도 (시139: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139:11)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시139:12)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시139:13)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시139:14)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시139:15)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시139:16)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시139:17)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시139:18)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깎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12. 10번 구절 참조

13. (사55:8) ¶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사55:9)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14. (롬11:33)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11:34)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연자가 되었느냐? (롬11:35) 누가 그분께 먼저 드러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롬11:36)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8. (히11:3)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20. (히11:6)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21. (시14:2)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되 (시14:3)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22. (계20:11)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계20:12)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계20:13)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계20:14)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계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II. 살아 있는 말씀

1. (욥23:3)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욥23:8)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

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욥23:9)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시므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3. (롬1: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5. (히1:1)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히1: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8. a. (출20:1)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b. (렘2: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네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네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네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c. (겔2:1)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d. (사1:10) ¶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e. (왕상3:5) ¶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9. (벧전1:10)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벧전1:11)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라.

10. (딤후3: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2. (벧후1:21)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18. (렘16:14) ¶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렘16:15)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렘16:16) ¶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굴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슥8:7)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슥8:8)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 (신18:21) 네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신18:22)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22. a. (요20:30) ¶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요20:31)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

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b. (눅24:27)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c. (요일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23. (딤후3: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III. 거룩하신 분

1. (사6:1)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사6:2)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2. 위 구절 참조

3. (사6:3)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5. (사6:5) ¶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6. (민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레13:45)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13:46)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8. (단10:11)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9. (겔14: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겔14:20)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 있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0. (단2:46) ¶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11. (단6:4) ¶ 그때에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12. (단6:5)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13. (단10:7)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14. (단10:8)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16. (요13:23)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의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17. 위 구절 참조

18. (마27:56)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마20:20) ¶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마20:21)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마20:2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마20: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20:24) 그 열 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막10:35) ¶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매 (막10:3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막10:3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막

10: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막10:39)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막10:40)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19:25) ¶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 요 클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19. (계1:9)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20. a. (계1:13)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 b. 위 구절 참조
- c. (계1: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 d. 위 구절 참조
- e. (계1:15)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 f. 위 구절 참조
- g. (계1: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 h. 위 구절 참조

i. 위 구절 참조

21. (계1:17)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23. (계6:15)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계 6:16)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계6:17)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IV. 게임의 규정

2. (롬3: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롬3:10)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4. (마3:17)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17:5)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벧전2:22)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5. (출20: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 (출20:3) (1)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20:4) (2)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

- 며 (출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20:6)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20:7) (3)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20:8)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20:9) 옛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출20:10)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20:11) 옛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20:12) ¶ (5)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출20:13) (6)너는 살인하지 말라. (출20:14) (7)너는 간음하지 말라. (출20:15) (8)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출20:16) (9)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출20:17) (10)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6. (롬7: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약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10. (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

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겔18:4)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11. (마5:1)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마5:2)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12. (마5:3)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마5: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5: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마5:7)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5:8)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5:9)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마5:10)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마5:11)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5: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3. (사55:8) ¶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사55:9)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14. a. (마5:21) ¶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

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마5:23)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마5:24)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마5:25)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마5:26)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b. (마5:27) ¶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5: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마5: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c. (마5: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마5: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 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d. (마5:33) ¶ 또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5: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마5:35)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마5:36) 네가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마5:37)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e. (마5:38) ¶ 그들이 말한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마5:40)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마5:41)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 리를 가며 (마5: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f. (마5:43) ¶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5:45)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마5: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마5: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

냐? (마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16. (눅10:27)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18. (눅18:20)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19. (눅18:21)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거늘
20. (눅18:22)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21. (눅18:23)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23. (갈3:10)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24. a. (딤후1:8)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딤후1:9)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딤후1:10)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니라.

b. (롬3:19)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롬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25. (신27:14) ¶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신27:15)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신27:1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17)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18)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19)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20)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낸즉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21)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그것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22)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23) 자기 장모와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24)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25)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8:15) ¶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신28:16)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신28:17) 네 바구니와 네 쌓아 둔 것이 저주를 받고 (신28:18)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 떼가 저주를 받으며 (신28:19)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28:20) 네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신28:21) 주께서 네게 역병이 붙게 하사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신28:22)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28:23) 또한 네 머리 위의 네 하늘은 낯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신28:24)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네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28:25) 주께서 너로 하여금 네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신28:26) 네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으리라. (신28:27)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신28:28)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의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신28:29)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한낮에도 더듬는 것이요, 네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락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신28:30) 네가 아내와 정혼하나 다른 사람이 그

녀와 함께 누우며 네가 집을 건축하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네가 포도원을 세우나 그것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신28:31) 네 소를 네 눈앞에서 잡으나 네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네 나귀를 네 얼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네 양들을 네 원수들에게 빼앗길 터이나 그것들을 구해 줄 자가 네게 없으리라. (신28:32) 네 아들딸들을 다른 백성에게 주고는 네 눈이 온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하나 네 손에 힘이 없으며 (신28:33) 네 땅의 열매와 네 모든 수고의 열매를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신28:34) 이러므로 네가 볼 것 즉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신28:35)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네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신28:36) 주께서 너와 또 네가 네 위에 세울 네 왕을 너나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신28:37)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신28:38) 네가 많은 씨를 들에 가져갈지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으므로 적게 거두며 (신28:39) 네가 포도원을 세우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으므로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신28:40) 네 모든 지경 내에 네게 올리브나무가 있을지라도 네 올리브 열매가 떨어지므로 네가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리라. (신28:41) 네가 아들딸들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가 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신28:42) 네 모든 나무와 네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 치우며 (신28:43) 네 안에 거하는 타국인은 너보다 훨씬 높게 되고 너는 매우 낮게 되며 (신28:44) 그는 네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신28:45) 또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네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

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신28:46) 그것들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신28:47)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네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신28:48)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네 원수들을 네가 섬기되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 멍에를 네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28:49) 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네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신28:50) 옹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신28:51) 그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네 암소의 번식이나 네 양 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28:52) 그가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고 마침내 네가 신뢰한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네 온 땅에서 헐며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온 땅의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신28:53) 네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며 곤경에 빠뜨릴 때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몸의 열매 곧 네 아들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신28:54)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아주 연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자기가 남길 자기 자식들 중의 남은 자들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신28:55) 자기가 먹을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 중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원수들이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곤경에 빠뜨릴 때에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신28:56) 또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연약하고 유순하여 자기 발바닥을 땅에 대려 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딸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신28:57) 또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것과 자

기가 낱을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드리니 이는 네 원수들이 네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곤경에 빠뜨릴 때에 그녀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은밀히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신28:58)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네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신28:59) 주께서 네가 당할 재앙과 네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신28:60) 또한 그분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붙게 하시며 (신28:61) 또 주께서 이 율법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네가 멸망하리로다. (신28:62)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의 수가 적으리라. (신28:63)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며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네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라. (신28:64)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나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신28:65)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신28:66) 네 생명이 네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네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신28:67) 네가 두려워하게 될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게 될 것 즉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신28:68) 또 주께서 너를 배에 실어 전에 내가 네게 말한 길 곧,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또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을 통

해 너를 이집트로 끌어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릴 터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26. (갈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27. (행4: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V. 모든 것을 보는 눈

1. (렘17:9) ¶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렘17:10)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2. (롬3:10)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4. (사64:6)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앞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5. (롬3: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6. (고전2:14)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7. (행8:30)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행8:31)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행8:32)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

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행8:33)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행8:34)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행8:35)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9. (롬3: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0. (롬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롬3: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롬3: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롬3: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롬3: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롬3: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1. a.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b. (사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 (창16:13)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뵈었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13. (롬2:16)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14. (눅12:2) 덮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눅12: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15.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16. (계20:13)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17. (엡2: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엡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 (요3:18)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 3:19)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VI. 완벽한 사람

1. (마5:17) ¶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4. a. (마1:21)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b. (딤후1:15)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일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5. (마3:17)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6. (마17:1)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마17:2)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마17:3)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마17:4)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17:5)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마17:6)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7. (롬1: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롬1: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8. (벧전2:22)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벧전2: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벧전2:24)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9. (요20:24) ¶ 그러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요20: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20:26) ¶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20:27)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요20:28)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하매

10. (요1: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11. (요11:27)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12. (요7:44) 그들 중의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요7:45) ¶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요7:46)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13. (마26:59)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마26:60)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14. (마27:3) ¶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마27: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15. (요19:4)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16. (눅23:39) ¶ 매달린 범죄자 중의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눅23:40)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눅23: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눅23:42)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17. (눅23:47)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마27:54)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VII. 갈라진 바위

1. a. (요12: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7)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b. (마16:21)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

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3. (롬6:23)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4. (벧전2:22)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6. (롬5: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롬5: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7. (고전15:3)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8.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9. a. (사53:5)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사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b. (벧전2:24)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c. (벧전3:18)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10. (요1:29) ¶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14. (요일1:8)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1: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2:1)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2:2)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16. (히2:1)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히2:2)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히2:3)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VIII. 위대한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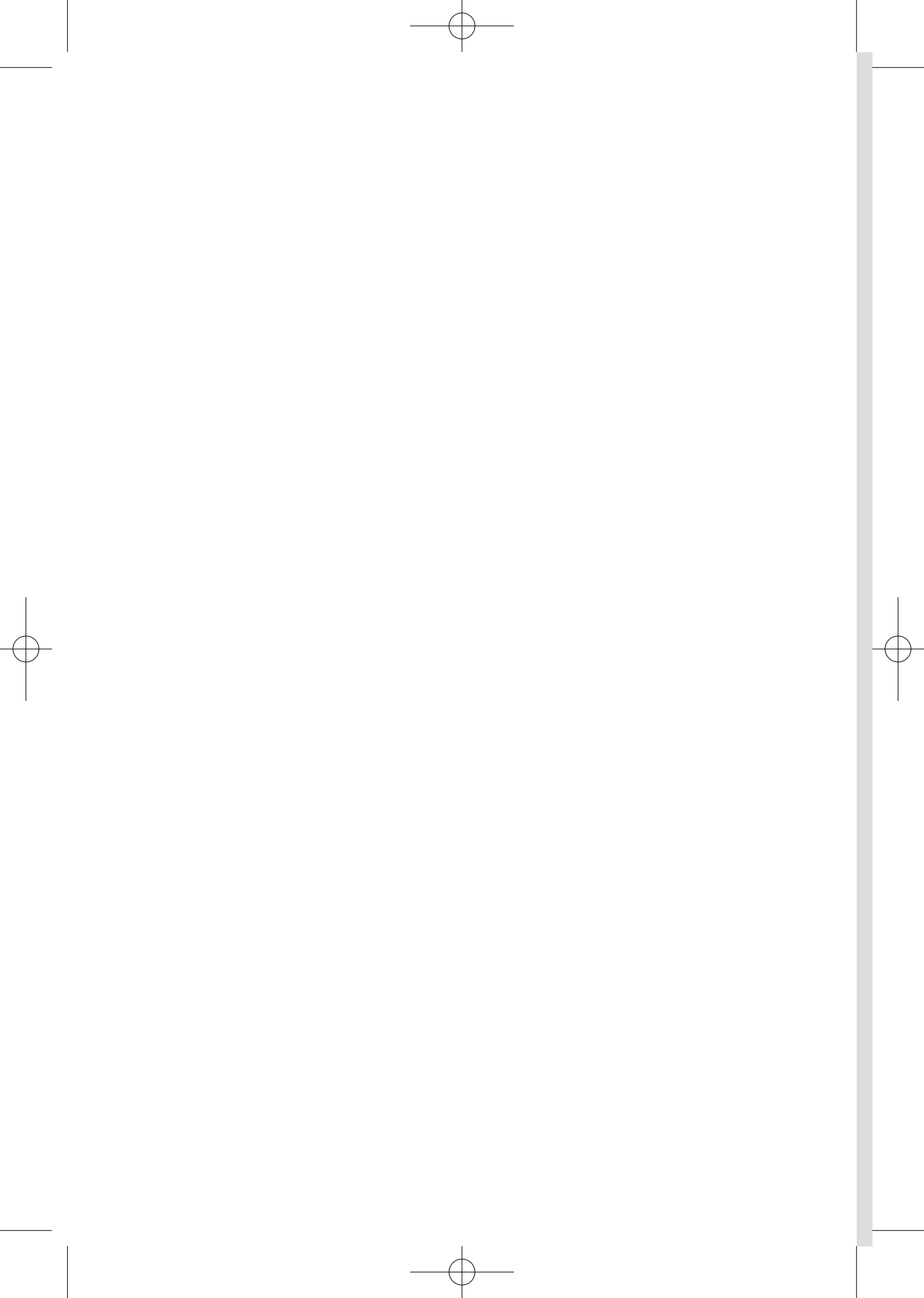
1. (요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2. (잠14: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3. (마7:13) ¶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7:14)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4. (요3:16)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 (계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6.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8. (계21: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계21:2)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계21:3)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계21: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

이라, 하더라. (계21:5)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9. (요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요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14: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0. (수24:15)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 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11. (마27: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마27:26) ¶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12. (눅11:23)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13. a. (행3:19) ¶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b. (요1: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1:13)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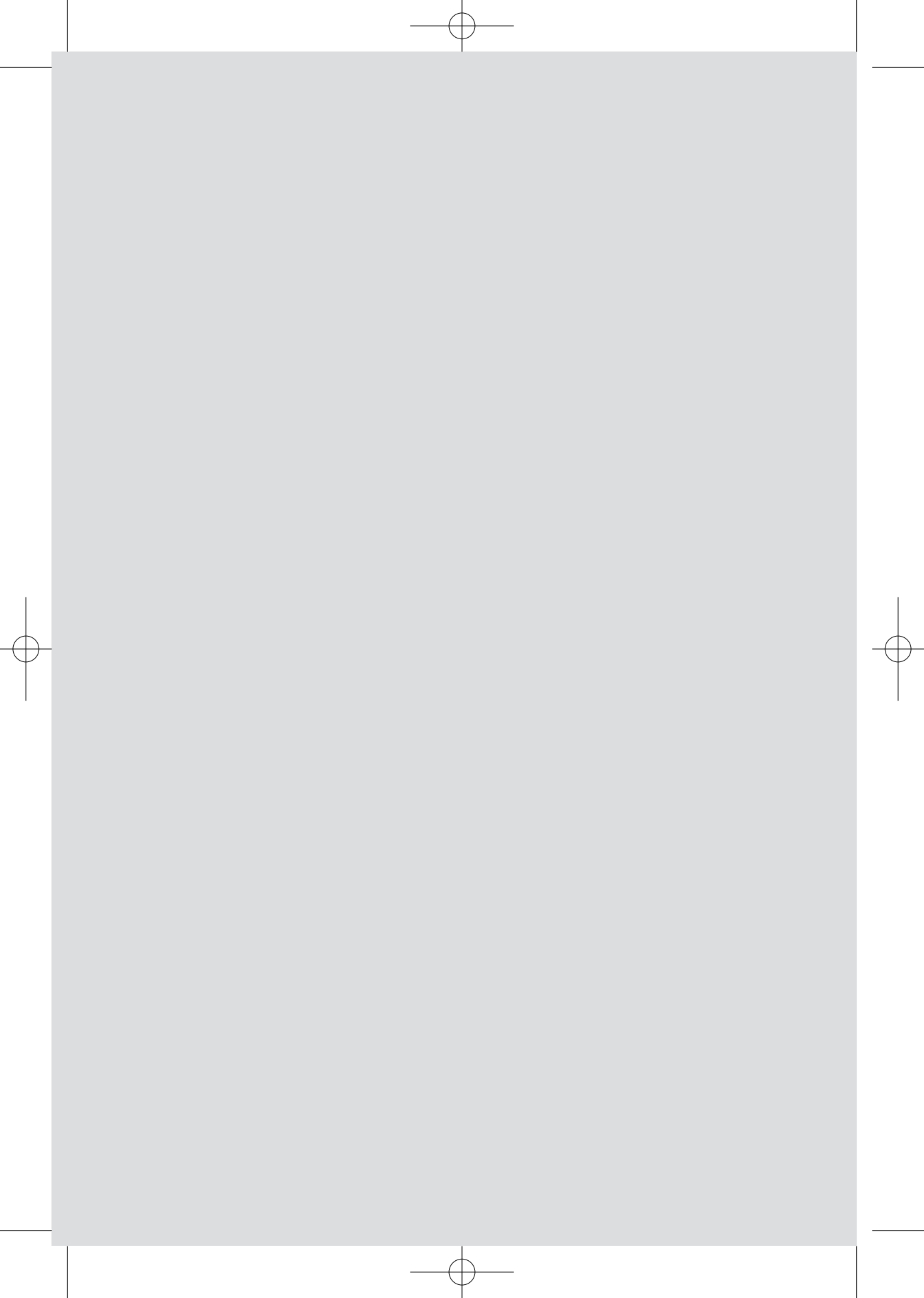
c. (롬6:23)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15. (잠27:1)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
가 알지 못하느니라.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 | 제 목 | 저 자 | 면 수 | 가 격 |
|----|---------------------------|-----------------|-----|-------|
| 1 | 고통과 함께 하는 삶 | Samuel C. Gipp | 104 | 3500 |
| 2 | 성령의 열매 | James W. Knox | 368 | 12000 |
| 3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 L.E. 맥스웰 | 240 | 8000 |
| 4 | 성장을 위한 첫 걸음 | Linton M. Smith | 480 | 15000 |
| 5 | 일곱 교회 | James W. Knox | 44 | 1000 |
| 6 | 확실한 기초 | James W. Knox | 280 | 8000 |
| 7 | 성령 침례 | James W. Knox | 28 | 1000 |
| 8 |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 James W. Knox | 220 | 8000 |
| 9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 James W. Knox | 40 | 1000 |
| 10 | 신유와 적그리스도 | James W. Knox | 40 | 1000 |
| 11 | 성경 연구 방법 | James W. Knox | 224 | 8000 |
| 12 | 교회의 휴거 | Linton M. Smith | 48 | 1000 |
| 13 |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 James W. Knox | 64 | 1000 |
| 14 |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 James W. Knox | 64 | 1000 |
| 15 |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 James W. Knox | 28 | 1000 |
| 16 | 큰 흰 왕좌 심판 | James W. Knox | 28 | 1000 |
| 17 | 기독교의 본질 | James W. Knox | 96 | 1000 |
| 18 | 설교의 준비와 전달 | James W. Knox | 88 | 4000 |
| 19 | 청지기 | James W. Knox | 40 | 1000 |
| 20 | 하늘나라와 지옥 | James W. Knox | 224 | 8000 |
| 21 | 하나님의 뜻 | James W. Knox | 40 | 1000 |
| 22 |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 James W. Knox | 28 | 1000 |
| 23 |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 James L. Melton | 28 | 1000 |
| 24 | 성경과 술 | James W. Knox | 28 | 1000 |
| 25 | 쉬운 복음 쉬운 전도 | James W. Knox | 144 | 5000 |
| 26 |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 James W. Knox | 64 | 1000 |

| | 제 목 | 저 자 | 면 수 | 가 격 |
|----|-----------------------------|------------------|-----|-------|
| 27 | 거룩한 여인 | James W. Knox | 60 | 1000 |
| 28 | 다시 태어났습니까? | H.E.M. | 32 | 1000 |
| 29 | 교회에 관한 교리 | James W. Knox | 448 | 15000 |
| 30 |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 Jeffery Tibbetts | 96 | 4000 |
| 31 |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 이우진 | 40 | 1000 |
| 32 | 교회와 대환난 | James W. Knox | 108 | 4000 |
| 33 |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 James W. Knox | 36 | 1000 |
| 34 | 세대주의 재고찰 | James W. Knox | 324 | 12000 |
| 35 | 구원의 영원한 보장 | James W. Knox | 128 | 5000 |
| 36 |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 James W. Knox | 56 | 1000 |
| 37 | 하나님의 말씀 | James W. Knox | 50 | 1000 |
| 38 | 가장 큰 명령 | James W. Knox | 42 | 1000 |
| 39 |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 James W. Knox | 180 | 7000 |
| 40 |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 James W. Knox | 40 | 1000 |
| 41 |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 Keith Piper | 32 | 1000 |
| 42 | 신약 생활 원리 | Norman Harrison | 96 | 4000 |
| 43 | 합당한 헌신 | James W. Knox | 32 | 1000 |
| 44 | The Essence of Christianity | James W. Knox | 28 | 1000 |
| 45 | 예수님 나의 예수님 | 이우진 | 48 | 1000 |
| 46 | 영원을 준비하는 삶 | 이우진 | 28 | 1000 |
| 47 | 성경의 기초들 | Brent Logan | 100 | 4000 |
| 48 |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 James W. Knox | 28 | 1000 |
| 49 |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Keith Piper | 28 | 1000 |
| 50 | 셋째 출생 | James W. Knox | 32 | 1000 |
| 51 |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 Keith Piper | 32 | 1000 |
| 52 | 결혼과 가정 | James W. Knox | 288 | 10000 |
| 53 | 구원의 조건 | George Parson | 110 | 4000 |
| 54 | 예수님과 성경 | James W. Knox | 140 | 5000 |

| | 제 목 | 저 자 | 면 수 | 가 격 |
|----|-----------------------------------|-------------------|-----|-------|
| 55 | 두 본성 | George Zeller | 60 | 1000 |
| 56 |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 Terry Watkins | 60 | 1000 |
| 57 | 거리 설교의 유익 | James W. Knox | 52 | 1000 |
| 58 | 레위기 개요 | James W. Knox | 48 | 1000 |
| 59 | 히브리서 연구 | M. R. De Haan | 336 | 12000 |
| 60 | 천년왕국 | Keith Piper | 36 | 1000 |
| 61 | 창세기 주석 | James W. Knox | 536 | 18000 |
| 62 |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Samuel C. Gipp | 168 | 6000 |
| 63 | 두 홍수(간극이론) | James W. Knox | 32 | 1000 |
| 64 |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 와 '야호' 커넥션인가? | Gail A. Riplinger | 48 | 1000 |
| 65 | 하나님의 모든계획 | 김 영 균 | 272 | 8000 |
| 66 |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 Gaines Johnson | 56 | 1000 |
| 67 | 간극이냐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 David F. Reagan | 48 | 1000 |
| 68 | 영원히 살려면 | John Phillips | 112 | 4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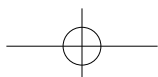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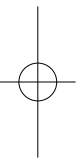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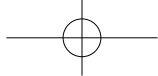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5년 4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 John Phillips

John Phillips taught in the Moody Evening School and on the Moody Broadcasting radio network. He is the author of numerous books, including a multivolume expository commentary series. Now retired, Dr. Phillips remains active in his writing and preaching. He and his wife, Betty, live in Winston-Salem, North Carolina.

담임목사 김영균

- * 前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 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나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엘.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무엘. 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둬의 법칙〉 / 라온누리

